

아시아나 차별화 전략 리스본 단독운항 개설

〈포르투갈〉

인천-리스본 직항 주2회
최신형 항공기 A350 투입
카이로, 멜버른 추가 운항



아시아나항공이 유럽의 명소 '포르투갈 리스본'에 주 2회(월·수요일) 단독운항한다.

17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포르투갈 리스본에 직항 노선으로 비행기를 띠우는 것은 국적 항공사 중에 아시아나항공이 처음이다. 운항기간은 오는 10월 28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동계시즌 동안 부정기편으로 운영한다.

포르투갈 리스본 항공권은 개별 여행객은 물론 여행사 상품을 통한 구매가 모두 가능하다. 항공권과 여행 상품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모바일과 주요 여행사를 통해 예약과 발권 모두 가능하다.

또 해당 노선에는 '이코노미 스마티움' 좌석, 기내 무선인터넷(WI-FI),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선호도가 높은 최신형 항공기 A350이 투입돼 승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도울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유럽 신규 노선 운항으로 유럽 지역 네트워크와 영업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잠재된 관광 노선을 지속 발굴해 더욱 차별화된 노선 경쟁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부터 이집트 카이로와 호주 멜버른에도 직항 부정기편을 추가 운항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인천~리스본 부정기편 운항을 기념해 해당 노선의 A350 '이코노미 스마티움' 좌석 추가 요금을 10만원(편도 기준)으로 할인 판매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토탈, 에틸렌 생산시설 증설 완료



한화토탈은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충남 대산공장 에틸렌 생산시설 증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상업가동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화토탈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약 29개월간 투자비 5400억원, 연인원 60만명을 투입하여 연간 에틸렌 31만톤, 프로필렌 13만톤 생산규모의 '가스 전용 분해시설(NCC)'을 완공했다. 이에 따라 한화토탈은 연간 에틸렌 140만톤, 프로필렌 106만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에틸렌,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초원료다.

한화토탈은 이번 증설로 연매출 5900억원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증설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 나프타 원료 기반의 분해시설(NCC) 확대가 아닌 '가스 전용 분해시설'을 통한 생산 확대라는 점이다. 한화토탈의 '가스 전용 분해시설'은 기존 나프타 대비 가격이 낮은 프로판

가스(LPG)를 원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 NCC와 연결해 스텁, 전기, 용수 등 생산 인프라를 공유하는 설계 최적화로 통상적인 NCC 신설 대비 약 25% 투자비를 절감하는 등 경제성을 극대화한 설비다.

최근 석유화학시장은 북미 세일가스 기반의 애탄분해시설(ECC), 중국의 석탄화학시설(CTO/MTO) 등 저가원료 기반의 증설과 경기 침체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토탈은 이번 증설로 규모의 경제와 원가경쟁력 제고로 치열한 경쟁의 파고를 넘는다는 복안이다.

/정연우 기자

현대제철, 'DJSI 월드' 2년 연속 선정

현대제철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2019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DJSI 월드' 지수에 선정됨과 동시에 철강산업군 '인더스트리 리더(최우수 기업)'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는 1999년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의 S&P 다우존스인덱스와 글로벌 지

/정연우 기자

미지엠 파업... 콜로라도 등 물량확보 비상

노조 4만8000명 파업 결정
한국지엠, 당분간 예의주시

한국지엠에 이어 미국지엠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콜로라도-트래버스 물량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지엠은 두 차종 모두 미국지엠으로부터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픽업트럭인 콜로라도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래버스는 한국지엠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신차로 미국 내에서도 인기 차종으로 알려졌다. 콜로라도의 경우 출시 2~3일만에 사전계약 500대를 기록했을 정도로 반응이 좋은 모델이다. 그러나 노조 파업이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터지며 물량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돌고 있는 상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콜로라도-트래버스의 판매실적은 10월경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물량확보 여부에 대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래버스.



픽업트럭 콜로라도. /한국지엠

서는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콜로라도-트래버스의 국내 물량과 현재까지의 사전계약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미국 내 지엠 공장에서 근무하는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노동자 약 4만8000명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UAW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미국 노동계에 가

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지엠 노조의 이번 파업은 2007년 이후 12년만이다.

UAW와 지엠은 4년전 체결된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협약을 위해 수개월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임금, 의료보험, 고용안정, 수익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업계는 미국 생산이 중단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지엠 차량 생산도 멈춰 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수장 바꾼 LGD, 희망퇴직 돌입

임원·조직 축소, 조기 개편 실시
LCD 인력 중심 희망퇴직 검토

최근 실적 악화로 최고경영자(CEO)를 전격 교체한 LG디스플레이가 희망퇴직과 임원 축소 등을 통한 '조직 다이어트'에 나섰다.

17일 LG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설명회를 열고 희망퇴직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은 2차 희망퇴직이다.

희망퇴직 대상은 근속 5년 차 이상의 기능직(생산직)이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정급여의 36회치를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3일부터 3주 간 희망자를 접수하고

다음 달 말까지 희망퇴직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리막에 접어든 LCD(액정표시장치) 사업 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구조조정도 예고됐다. 회사 측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로의 전환 가속화를 고려해 LCD 인력을 중심으로 사무직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또한 임원·담당 조직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기 조직개편도 실시한다. 경영의 속도감을 높이고 사업별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중국발 LCD 공급 과잉에 따른 판가 하락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경영 실적이 악화하자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8.5세대 올레드 공장. /연합뉴스

회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급감하는 LCD에서 OLED로 사업구조 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체 여유인력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사가 심도 있게 협의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을 실시하지만 OLED 등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등 우수 인재를 중심으로 하는 채용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회계전문가 양성

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서 출품
공장자동화 기기, 기술지원 솔루션

현대위아가 고성능 공작기계와 스마트팩토리로 공작기계 시장의 본토인 유럽 공략에 나선다.

현대위아는 16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전시회 'EMO 하노버 2019'에서 의료 산업용 공작기계 XF2000 등 총 10종의 공작기계를 출품한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총 736m²(약 223평)의 대규모 전시 공간에 공작기계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공장자동화(FA) 기기, 기술지원 솔루션 등을 전시한다.

EMO는 전 세계 51개국에서 2700여 개업체와 약 15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전시회로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현대위아는 의료산업 수요가 높은 유럽시장에 맞춰, 독일에 위치한 유럽연구 현대위아부스 조감도. /현대위아

센터에서 개발한 XF2000을 주력 모델로 내세웠다. XF2000은 '정밀성' 기공속도 '안정성'이 강점인 공작기계다.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사로서의 장점을 살린 자동차 부품 가공 자동화 라인도 선보인다. 또 머시닝센터 기종인 HS 6300과 공장자동화 시스템 PLS(Pallet Line System)를 연결해 파워트레인 부품 가공 자동화 라인도 전시한다.

PLS는 작업자가 직접 해야 하는 가공물의 이동과 적재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생산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제어하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아이리스(iRiS)'도 전시한다.

/양성운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직무 관련 유관부서 실무자 72명을 대상으로 회계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회계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일반적인 사내 교육과는 달리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총 2학기로 구성된 이번 교육과정은 내년 4월말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매일 4시간씩 매주 4일 집합교육을 통해 재무회계, 세무, 원가회계관리,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관련 교육과정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가 수준의 소양을 기를 수 있게 진행된다.

대우조선이 이 같은 교육에 나서게 된 이유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인증수준이 상향돼 어느 때보다 회계 투명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져서다.

/정연우 기자